한옥마을의 밤, 태조할아버지 · 야행이와 함께

전주문화재야행, 12일부터 온라인 진행

전주야행TV 유튜브 채널 통해 야경 · 야로 · 야사 등 주제 90여개 영상 콘텐츠 제공
독자적 마스코트 될 캐릭터 새롭게 제작돼 굿즈도 개발 코로나 응원 이벤트도 준비

올해 전주문화재야행에서는 '태조할아버지'와 '야행이'라는 마스코트가 선을 보인다.

전주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문화재를 보고 체험하며 전주의 아름다운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2020 전주문화재야행'을 오는 12일부터 10월 8일까지 유튜브, 아프리카TV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당초 전주문화재야행은 오는 12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온·오프라인으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이 고려돼 이같이 변경됐다.

'유튜브 속으로, 전주야행TV'를 슬로건으로 한 이번 야행은 12일 열리는 '전주야행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야경(빛의 술사들) ▲야로(문화재 술사들) ▲야사(이야기 술사들) ▲야화(그림 술사들) ▲야설(공연 술사들) ▲야식(음식 술사들) ▲야숙(여행 술사들) 등 7야(夜)를 주제로 14개 프로그램, 약 90개의 영상 콘텐츠가 제공된다.

세부적으로 문화유산 VR 온라인투어를 통해 경기전, 전라감영, 풍남문, 조경묘, 남고산성, 향교, 오목대, 완판본문화관, 소리문화관, 부채문화관 등 10곳의 문화재를 VR(가상현실)로 감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사극연기 따라하기 ▲방구석 한식대첩 ▲바람을 가르는 제기차기 ▲상상 속 어진 그리기 ▲문화재 3·4행시 짓기 ▲카카오톡 문화재 OX 퀴즈 ▲거리의 화공 ▲마인크래프트 전주건설 공모전 등 챌린지와 공모전, 이벤트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특히 전주문화재야행의 독자적 마스코트가 될 캐릭터인 '태조 할아버지'와 '야행이'가 새롭게 제작돼 굿즈도 개발되며, 캐릭터를 활용해 무형문화재를 배우고 문화유산도 답사하는 콘텐츠도 운영된다.

아울러 아프리카TV BJ 10명은 왕과의 산책과 경기전 사람들, 경기전 좀비실록 등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시민들과 함께 전주야행 코로나 응원 이벤트(스테이 스트롱)도 벌일 예정이다.

시는 전주문화재야행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표 온라인 콘텐츠를 QR코드화해 공공장소와 시내버스, 전주한옥마을 일원에서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제공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전주문화재야행은 지난 2016년부터 5년간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아왔다.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 관광객인 약 28만여 명이 방문했으며, 지난 4월에는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하는 국내 야간관광 100선에 선정되기도 했다.

한편 전주문화재야행 프로그램 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문화재야행 홈페이지(jeonjunight.com)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문체부, 예술경영 우수사례 공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문체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김도일)가 오는 10월5일까지 '2020 예술경영 우수사례'를 공모한다. 6개 단체를 선정해 12월 중 '예술경영대상'을 시상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전문예술법인·단체와 예술기업이 사업 개발, 조직 운영, 재원 조성 분야에서 예술경영으로 단체나 기업의 상표 가치를 높이고 수익 창출, 관객 개발, 경영 활성화 등의 성과를 낸 사례 등을 찾는다.

특히 올해는 공모 대상을 전문예술법인·단체에 한정하지 않는다. 일반 예술기업으로 확대해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라 문체부와 17개 지자체가 지정한 전문예술법인과 전문예술단체(20년 7월 기준 1315개), 문화예술 분야 창·제작 및 유통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단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우수사례 공모에 대한 시상 규모도 확대한다. 지난해보다 문체부 장관 표창 2점을 더 추가해, 문체부 장관 표창 4곳,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표창 1곳, 수림문화재단 이사장 표창 1곳 등, 총 6곳에 시상금 4,000만원을 수여한다. 작년에는 총시상금이 2,000만원이었다.

1차 서류심사를 통해 12개 내외 단체를 선발하고, 선발 단체를 대상으로 사례발표 전달력 향상을 위한 사전 연수회를 운영한 후 발표 심사를 통해 최종 우수사례를 선정한다. /뉴시스

전주대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들이 8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 1,004만원을 기부했다.

전주대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들, 장학금 1004만원 기부

전주대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 1,004만원을 기부했다.

8일 김건우 교수, 이상균 교수, 이재운 교수, 변주승 교수, 홍성덕 교수, 이정욱 교수 등은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기부하기로 뜻을 모으고 재학생 대표 정의빈 학회장과 강성호 학생에게 장학 증서를 전달했다.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대학생들은 인터넷 설치, 비대면 학습장비 구입 등 학습을 위한 추가 비용 등이 소요되어 경제적인 부담을 안고 있다. 이에 역사문화학과 교수들은 이런 학생들을 조금이나마 돕기 위해 장학금을 모았다.

이재운 교수는 "학생들의 성공을 위하는 교수들이 학생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장학금을 기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며, "학과 교수님들의 사랑과 헌신이 학생들에게는 꿈과 희망으로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호인 총장은 "전국에서도 높은 연구역량과 교육수준을 자랑하는 전주대 역사문화콘텐츠학과가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 또한 높다"며, "제자 사랑의 마음과 좋은 영향력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전주대는 '힘내라 수퍼스타' 코로나19 극복 장학금 모금 캠페인을 진행, 교직원, 동문들이 자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춘향제의 모든 행사 '무관중 · 온라인'으로 진행

제전위, 유튜브채널 '남원와락' 신설
모든 프로그램 실시간으로 생중계

남원 광한루원 일원에서 10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될 제90회 춘향제가 춘향제향, 춘향선발대회, 대표브랜드공연 '춘향은 살아있다' 등 3개 프로그램으로 구성, 모든 행사를 무관중 및 온라인 등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춘향제전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제90회 춘향제 모든 행사를 무관객, 온라인, 비대면 축제로 전환, 진행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제90회 춘향제전위는 유튜브채널 '남원와락'을 신설, 모든 프로그램을 실시간으로 온라인 생중계하고 댓글을 통해 양방향 소통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10일 개막하는 90회 춘향는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90년간 춘향제의 명맥을 잇게 해 준 춘향제 대표 프로그램 '춘향제향'을 10일 오전 10시에 광한루원 춘향사당에서 개최하며, 기존 방식과 달리 무관중으로 진행하는 만큼, 많은 관중과 웅장함은 부족할지라도 그 어느 때보다 정성을 다해 엄숙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제향에서는 춘향의 얼을 기리는 한편, 코로나19와 집중호우 및 태풍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뜻을 함께 기원드릴 예정이며, 온라인 영상을 통해 어려운 제향 용어들을 쉽게 풀어 설명해 이해력을 높일 예정이다.

지난해 열린 춘향제 '춘향제향'

춘향제의 백미인 춘향선발대회도 방역에 중점을 두고 무관중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8월 15일 1~2차 예선에서도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지침 준수는 물론, 본선진출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던 사전합숙도 취소하는 등 방역에 만전을 기울였다.

특히, 올해 본선은 개인별 심층면접을 더욱 강화해서 진행할 계획이며, 결과는 온라인 실시간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도 춘향제전위는 제 90회 춘향제를 기념하는 대표브랜드공연 뮤지컬 '춘향은 살아있다'를 선보일 계획이며, 공연에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랑이야기 춘향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 이몽룡역에 GOD 손호영, 성춘향역에 타니아(채송화), 변학도역에 윤세웅이 출연, 색다른 춘향전을 선보인다.

특히, 이번 작품에는 전통창극 재해석의 권위자이며, 국립민속국악원의 예술감독을 역임했던 지기학 연출가를 비롯해, 영화 '쌍화점'과 '구르믈 버서난 달처럼'의 OST를 작곡한 김백찬 음악감독 등이 참여, 작품의 완성도를 한껏 높였으며, 공연은 11일 오후 8시부터 유튜브채널 '남원와락'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한편 이환주 시장은 "제90회 춘향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온라인 채널 신설 등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관람할 수 있도록 새로운 축제를 구성해 다변화된 춘향제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